

베트남에서 점진적 개혁의 지속: 제11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이 한 우*

I. 머리말

베트남공산당(이하, 당)은 2011년 1월 12-19일 간 360만 당원 중 1,377명 대표의 참석 하에 제11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당대회의 주제는 “당의 영도와 전투 능력을 계속하여 향상시키고 전 민족이 역량을 발휘하여 쇄신 작업을 전면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현대 지향 공업 국으로 되는 기초(기반)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검토하고, “10년간(2001-2010) 경제사회 발전전략” 및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로의 과도시기 국가건설 강령”의 실현상황을 총결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대회는 “사회주의로의 과도시기 국가건설 강령(2011년 보충·발전)”, “2011-2020 경제사회 발전전략”, “정치 보고”, “당 조례 보충과 개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보고”, “제10기 당중앙집행위원회의 영도·지도 점검보고” 등 문건을 채택하였다.

* 한국동남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겸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이 논문의 보완할 점을 날카롭고 적절히 지적해주어 논문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당은 향후 10년간 발전의 주요 목표로 “현대 지향 공업국”의 기초(기반) 완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당대회는 향후 5년간 당-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였다. 당대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이하, 당중앙위) 위원 200명(정위원 175명, 후보위원 25명)을 선출하였고, 당중앙위는 이 가운데 정치국 위원 14명, 비서국 위원 4명, 중앙감찰위원회 위원 21명을 선출하였다.

이 연구는 베트남에서 제11차 당대회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당중앙위 및 정치국 인사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이번 당대회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고 향후 베트남의 변화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당은 1975년 통일 이후 1976년 제4차 대회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당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와 사회의 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영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회에서의 변화는 향후 정치경제적 변화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함수관계를 이루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베트남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당대회를 분석하면서 문건과 인사변동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연구하는 방법은 결함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검토되기도 하였다(Gainsborough 2007). 게인스보로는 당대회를 둘러싼 연구가 많은 정치적 결과물 중 단지 정책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당대회를 전후하여 후원자들과 연계를 맺고 이의 정치적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도 인적 네트워크인 후원-수혜관계가 작동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고정적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이지도 않다. 또한 이러한 후원-수혜관계는 당대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당대회만으로 정치체제 전반의 변화를

평가할 수는 없으며, 정치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전후 전개과정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어 공산당의 의지가 정책으로 응축되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대 사건이므로,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과 인사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베트남 현 체제의 현상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 당대회에서 채택되는 각종 문건은 향후 국가의 지도지침으로서의 의미를 띤다. 당대회 이후 당은 매년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당중앙위 회의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부 등 각 국가기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따라서 당대회에서 채택되는 문건들이 수사적(修辭的) 표현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도 정책 수립상 지도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관련 국가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한편, 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은 향후 5년간 각 국가기관의 주요 직위를 겸직하게 된다. 베트남은 정치적 결정에서 여전히 인치적(人治的)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어, 누가 어느 직위를 맡느냐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다. 이런 의미에서 당 고위 지도자들의 인사상 변화를 분석하는 것도 향후 베트남의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다.

II. 당대회를 둘러싼 정치경제

1. 체제 변화의 압력과 대응

이번 당대회 준비기간에도 예전처럼 사회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논의, 반정부인사의 구금, 부패사건 폭로, 언론 및 당내에서의 논쟁과

비평 등이 전개되었다(Gainsborough 2007; Malesky et al. 2011).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비판적 인사에 대한 탄압의 대표적 사례는 법학박사 꾸후이하부(Cu Huy Ha Vu)의 사례다. 그는 호찌민과 함께 혁명활동을 한 시인 꾸후이컨(Cu Huy Can)의 아들로, 이른바 혁명가정의 자녀다. 그는 응웬떤중(Nguyen Tan Dung) 수상이 2009년 보크사이트 광산개발권을 중국에 내줘 환경오염을 초래하였고 2010년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집단청원을 금지한 수상 명령을 발한 것을 비판하며, 수상을 두 번이나 고소하였다(Malesky et al. 2011: 357). 그는 다당제와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여 반국가 선전 혐의로 2011년 4월 4일 하노이 법정에서 7년 감옥형과 이후 3년간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8월 2일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량이 주어졌다("Vietnam Activist Cu Huy Ha Vu jailed after Hanoi Trial." *BBC News*, 2011/04/04; "Vu TS Cu Huy Ha Vu: Y an So tham." <http://www.bbc.co.uk/vietnamese/>, 2011/08/02).¹⁾

정치개혁과 다당제에 대한 요구는 체제비판자뿐 아니라 체제 내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계속되어 왔다. 비판자들 다수의 주장은 베트남에서 공산당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당제를 허용하여 자유 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근래 가장 조직적인 사례로는 ‘블록 8406’을 들 수 있다. 2006년 4월 8일에 반체제인사 118명은 “베트남 자유민주 선언”을 발표하여, ‘블록 8406’으로 불렸다.²⁾ 이들은 언론 자유, 비공산주의 정당을 허용하는 다당제,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화

1) 꾸후이하부가 법정에 섰던 4월 4일 하노이 법정 밖에서 그의 지지자들 속에 있던 팜홍썬(Pham Hong Son)과 레꾸옥퀸(Le Quoc Quan)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팜홍썬은 2002년 미국 국무성 웹사이트에 있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2006년에 석방되었다. 레꾸옥퀸은 2007년 워싱턴의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펠로우십 이후 귀국하자 체포되어 3개월간 구금되었다("Vietnam Detains 2 Prominent Dissidents." *Associated Press*, 2011/04/07).

2) 베트남의 연월일 표기방식은 일-월-연 순이어서, ‘블록 8406’은 ‘베트남 자유민주 선언’을 8일-4월-2006년 발표하여 ‘8406’이라고 붙여졌다.

등을 요구하였다. ‘블록 8406’은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나, 공안당국이 APEC 정상회의 이후 지도자들을 검거하여 2007년 초 재판을 통하여 수감함으로써 수면 아래로 침잠하게 되었다(이한우 2010a: 173-174).

한편으로는, 보수적 인사들이 체제내 비판자들에 대한 경고성 논설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2010년 4월 4일자 『권도이년전』(*Quan doi Nhan dan*, 인민군대)에 실린 논설에서 레반바오(Le Van Bao) 박사는 공산당 내 ‘자기 변화(전복)’(*tu dien bien*, 自演變)의 위기를 경계하며, “노선을 벗어난 정치사상은 정치체제의 분리와 자멸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일부 간부들이 사상·정치에서 후퇴하고 혁명이상을 변색하며 공산당 영도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Lo ngai Dang 'Tu Dien bien'."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04/09).³⁾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베트남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2006년 4월 제10차 당대회 직전에 전개된 것과 같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제10차 당대회 직전에는 레당조아인(Le Dang Doanh), 응웬쭙(Nguyen Trung) 등 체제내 비판자들의 논설이 『뚜오이쎄』(*Tuoi Tre*), 『베트남넷』(*VietnamNet*), 『베트남 익스프레스』(*VnExpress*) 등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유포되면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한우 2007: 100-101). 이에 반해 제11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비판자들의 논설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단지, 2009년 중서부 보크사이트 광산개발권을 중국에 내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적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는 혁명원로 보응웬잡(Vo Nguyen Giap)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크사이트 광산 문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와 중국에 대한 민족주의가 결부되어 국민들의

3) 이러한 비판적 논설은 제11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비판이 거셴던 문제였다. 꾸후이하부처럼 일부 인사들은 보크사이트 광산문제를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수는 점진적 정치체제 개혁을 요구하였다. 예컨대 민간기관인 발전문제연구원 부원장 부주이푸(Vu Duy Phu)가 2010년 9월 정치국에 베트남공산당을 베트남사회당 또는 베트남노동당으로 개명하자고 제안하였다("Sua chua He thong XHCN 'nhieu khuyet tat'."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09/28). 그러나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이 이론적으로는 다당제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현재는 안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조건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유보하였다.

몇 가지 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것은 당 총비서 선출방식이었다. 당대회 이전에 언론보도는 총비서를 당중앙위에서 선출하지 않고 대표자 전원이 참석하는 당대회에서 선출할 것이라고 하였다(김선한 2010). 지방 성(province) 당위원회 비서를 성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10개 성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기에, 이의 전국적 시도가 당대회에서 총비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었다. 2006년 제10차 당대회에서도 총비서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복수 후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상에서 총비서를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은 당내 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발전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

2. 사회경제상황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당대회 전후 시기는 베트남이 “무역적자·달러·물가 3중고”를 겪는 침체 상황이었다(박승철·정동욱 2011).

4) 이번 제11차 당대회에서는 총비서가 당중앙위에서 선출되었고 후보도 응웬푸쑹 단일 후보여서,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개혁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무역수지 적자는 126억 달러로 베트남 국내총생산의 12%에 달하였고, 외환보유액은 2010년말 136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입액의 1-2개월분에 불과하였다. 2010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8%를 기록하여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여기에 더하여 대형 국영기업인 베트남선박공업공사(Vinashin Business Group)가 부실경영으로 45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만기도래한 6억 달러 가운데 1차 원리금 6천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여 지불유예(디폴트)를 선언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등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이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였다. 부실경영 하에 있는 국영기업은 비단 비나신만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급속한 물가상승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발생빈도가 높아져, 2006년 287건, 2007년 405건, 2008년 500건 이상 등으로 증가하였다(이한우 2010b: 400). 노동자 파업은 2010년에 216건 발생하였으나, 2011년 첫 3개월간 220건이나 발생하였다("Vietnam 'Strikes Rising' as Inflation Soars." *AFP*, 2011/05/17). 그 주된 원인은 높은 물가상승에 따르지 못하는 실질임금에 있었기에 이는 사회 전반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대외적 상황

대외적으로는 최근 베트남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로 자국의 위상을 높여 왔다. 베트남은 2010년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맡았고, 이는 2008-2009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았던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였다. 베트

남은 201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7월에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10월에 제17차 아세안정상회의와 제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개최하였다. 10월에는 제1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주재하고, 8월에 차관급으로 베트남-미국 간 국방정책 대화를 개최하였다(Amer 2010; Amer 2011). 베트남은 이러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중국과의 관계는 특히 2009년 이래 악화되었다. 1979년 전쟁을 치른 양국은 1991년 외교관계를 회복한 이래 협력관계를 확대해왔다. 베트남은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면서 전략적·포괄적 협력관계를 맺어 국제사회에서 협력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도 양국의 협력관계는 확대되어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2010년 127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무역적자 126억 달러에 상당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중국은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순위에서 제15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Pham Ngoc Thach 2011: 60-63). 최근 양국관계에서 가장 핫 이슈는 남중국해 갈등문제다. 중국은 특히 2009-2010년간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의 하나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빚었다(Thayer 2010). 이상의 요인들이 베트남의 대외관계를 보다 더 다변화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Ⅲ. 현 단계 평가 및 발전 방향

1. 현 발전단계 평가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은 다음과 같이 베트남의 현 발전

단계를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 발전단계를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과도기의 주요 임무는 경제발전에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 과제는 공업화·현대화를 추구하고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을 혼합소유 경제체제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Cuong linh 2011, III-1).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는 여러 소유형식과 ‘경제성분’(소유부분)을 지닌 경제체제다. 이 가운데 국유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유경제와 집체경제가 국민경제에서 날로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며, 사유경제를 경제의 여러 동력 중 하나로 인정하며, 외국투자경제도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이로써 혼합소유⁵⁾와 다양한 경제조직이 발전하며, 주로 노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가 실현된다.

정치사회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와 민족대단결의 힘을 발휘하도록 요구한다. 사회주의적 민주는 모든 국가권력이 인민에게 속하며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 노선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실현된다고 한다. 단지 ‘민주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책임과 사회의 규율·기강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은 민주적 토론환경을 조성하고, 사상공작·선전·학습의 전투성·설복성을 증강시켜야 하며(Bao cao Chinh tri, VII-2), “호찌민 도덕의 거울”(Tam cuong Dao duc Ho Chin Minh)에 따라 학습하고, 영도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한다.⁶⁾

베트남은 대외적으로 각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주의체제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외부에서는 적들이 ‘평화적 변화(전복)’(dien bien hoa binh, peaceful evolution)의 음모

5) 혼합소유형식은, 정부와 개인이 공유하는 주식회사, 복수 구성원 유한책임회사, 합영회사, 주식 합작사 등을 포함한다.

6) ‘호찌민 도덕의 거울’은 이번 당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를 계속 실현하여, 민주, 인권 등으로 위장하여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며, 내부에서는 사회주의 목표에서 이탈하여 ‘자기 변화(전복)’(tu dien bien, 自演變), ‘자기 전화’(tu chuyen hoa, 自轉化)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Bao cao Chinh tri, II-1). 여기서 목표는 독립·자주·평화·협력·발전의 노선을 견지하고, 대외관계를 다방면화·다원화하는 것이며, 대외전략의 주된 목표는 공업화·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데 유리한 평화적 환경을 견지하는 데 있다고 한다(Bao cao Chinh tri, VI).

2. 향후 10년간 발전 전략

당은 지난 10년간 경제사회 발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2001-201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7.26%의 실적을 나타냈고, 2010년에 1인당 GDP \$1,168를 기록하였다. 구매력평가지수로는 1인당 GDP가 \$3,600로 추산된다.

당은 “2011-2020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향후 10년간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Chien luoc, II-1, 2; Chien luoc, II-4, 5).

향후 발전전략을 관통하는 개념은 “지속적 발전”(phat trien ben vung, sustainable development)이며, 발전의 목표는 “부유한 인민, 강력한 국가, 민주·공평·문명화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당은 경제부문에서 다양한 소유부문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국유경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혼합소유기업, 이 가운데 주로 주식회사가 보편화되도록 하고, 더불어 국제적 통합을 심화하는 조건 하에서 독립·자주 경제를 건설한다.

소유부문별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Chien luoc, III-3).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를 촉진하고, 국가가 지배주주인 강력한 다소유(多所有) ‘경제집단’(tap doan kinh te: business group)⁷⁾을 건설하고, 혼합소유형식의 기업을 발전시킨다. 동시에 사유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사유(私有) ‘경제집단’의 형성을 추진하며 개인들이 국영 ‘경제집단’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이를 위하여 공정경쟁환경을 만들고 행정개혁을 수행하며, 양질의 인력 자원을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시장법칙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 법률, 계획 및 조절도구 등으로 경제를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정치개혁은 경제개혁 노선에 적합하게 같은 걸음(同步)을 걸어야 하고, 그 중심은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영도방식을 쇄신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전면적 쇄신을 촉진하고 전민족의 통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기율과 기강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당내·사회내 ‘민주’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한다(Chien luoc, II-2, IV-1).

2020년까지의 목표는 베트남을 “현대 지향 공업국으로 발전시키는 기초(기반)를 조성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이를 기반으로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지향의 현대 공업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의 구체적 목표는 경제부문에서 연평균 성장률 7-8%로 2010년 대비 GDP 2.2배 증가, 1인당 GDP \$3,000(구매력평가지수로는 \$6,500-7,500) 달성,⁸⁾ 공업·서비스의 GDP 점유비중 85%, 농업 노동력 비중 30-35%로 제시되었다(Chien luoc, III-1,

7) ‘경제집단’은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모델로 하여 여러 개의 대형 기업을 한데 묶어 상호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만든 대형 기업집단을 일컫는다. 대형 국유기업의 ‘경제집단’화는 2005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8개의 ‘경제집단’이 운영되고 있다.

8)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2010년 중진국 소득수준을 1인당 GDP \$6,500로 보면, 베트남이 2020년 중진국 소득수준에 달한다는 것이 목표다(Nguyen Van Thao & Nguyen Viet Thong 2011: 230-231).

2). 사회적 목표로는 도시화 비율 45%, 신농촌(新農村) 기준에 달하는 싸(xa) 50%,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중상위 위치, 인구증가율 약 1%, 평균 생존연령 75세, 전국민 의료보험, 빈곤가정비율 연평균 1.5-2% 감소, 인민의 소득 3.5배 증가, 1인당 가옥 건설면적 25m², 산림식목률 45% 등이 제시되었다(Chien luoc, III-2).

3. 향후 5년간 발전 목표

당은 이상 10년간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제11차 대회에 대한 제 10기 당중앙집행위원회의 정치보고”(Bao cao Chinh tri)에서 향후 5년간 발전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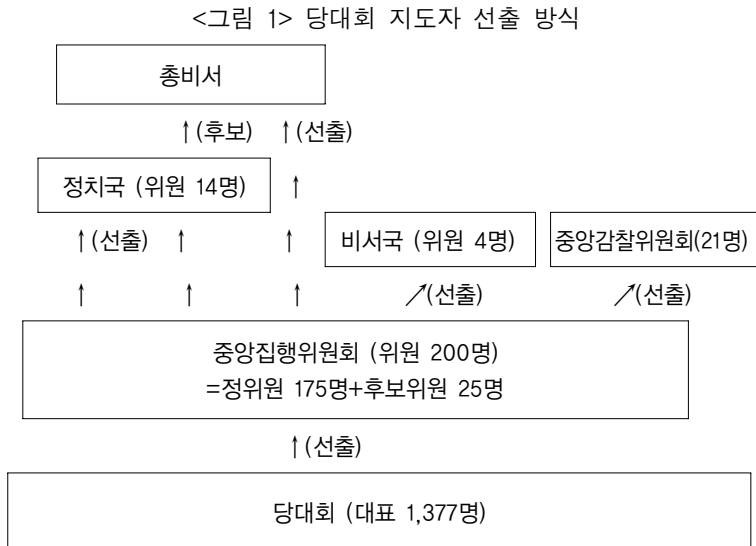
향후 5년간 목표는, 연평균 GDP 증가율 7.0-7.5%, 공업/건설 증가율 7.8-8.0%, 농업 증가율 2.6-3.0%로 제시되었고, 2015년 산업구조 목표는 농업 17-18%, 공업/건설 41-42%, 서비스 41-42%로 제시되었다.⁹⁾ 2015년 1인당 GDP 목표는 US\$2,000로, 2010년 \$1,168의 1.7배 수준이다. 이 밖에도 사회 투자자본 증가율 연평균 40% 증가, 국가 재정 증가율 GDP의 23-24%, 인구증가율 약 1% 등도 제시되었다 (Bao cao Chinh tri, II-3).

9) 베트남의 2009년 산업구조는 농수산업 21%, 공업/건설 40%, 서비스 39%였다.

IV. 제11기 당 지도부 구성의 특성

1. 당중앙위 구성

당 조례에 따르면, 당대회는 당중앙위 위원을 선출하고, 당중앙위가 정치국, 비서국, 중앙감찰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그림 1 참조).



<표 1>에서 보듯이 당대회는 당중앙위 정위원 175명, 후보위원 25명을 선출하였는데, 그 수는 제10기 당중앙위 정위원 160명, 후보위원 21명보다 많은 수였다. 제11기 당중앙위 위원 정원 대비 후보 비율은 정위원 125%(175:140), 후보위원 244%(25:10)로, 제10기 정위원 130%(160:123), 후보위원 219%(21:9), 제9기 정위원 125%(150:120)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이한우 2007: 92). 정치국 위원 후보도 선출 인원 대비 70% 더 많았고, 비서국 위원

후보는 이보다 더 많은 비율이었다("Dai hoi toa ra niem tin moi: Bau Bo chinh tri co so du 70%." <http://tuoitre.vn/>, 2011/01/19). 보다 더 많은 후보자 가운데 정치국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당내 민주화를 진전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당중앙위 정위원의 부문별 구성 변화

부문		당대회	제10차 (2006년)			제11차 (2011년)		
			연임	신임	계	연임	신임	계
중앙	당		19	8	27	20	6	26
	정부(법원 포함)		26	15	41	25	13	38
	국회		2	1	3	9	1	10
	사회단체		2	2	4	4	1	5
	학계		3	0	3	0	3	3
	소계		52	26	78	58	24	82
지방			19	45	64	18	56	74
군부			8	10	18	9	10	19
합계			79	81	160	85	90	175
구성비율			49.4%	50.6%		48.6%	51.4%	

주: * 중앙 당 출신은 중앙 당 직무 전임자를 뜻하며, 중앙 정부, 국회, 사회단체, 학계는 각 부문에서 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한다. 정부 중 국방부 소속 인사는 군부에 포함시켰다.

출처: “Danh sach Ban chap hanh Trung uong Dang Khoa X”; “Danh sach Uy vien Chinh thuc Ban chap hanh Trung uong Khoa XI,” <http://dangcongsang.vn/>을 기초로 작성.

부문별로는, 중앙에서 당 전임자, 사회단체, 학계 출신 인원수는 예전 수준이고, 중앙정부 소속 인원수가 감소한 반면 국회 소속 인원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국회의 역할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당 및 인민위원회 출신 인원수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지방 출신 인원수의 증가는 개혁에 따른 탈중앙집중화의 경향을

따른 듯하다. 지방출신 정위원수의 비율은 제7, 8기 36%로부터, 제9기 42%로 증가하였다가, 제10기 40%로 감소, 제11기 42%로 다시 증가하여, 근래에 4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군부는 예전과 비슷한 수다.

당중앙위 위원의 부문별 분포로 보면, 이번 제11차 당대회가 지난 당대회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지방에서 신임 위원 비율은 74명 중 56명으로 76%를 나타내 제10차 당대회의 70%(64명 중 45명)보다 6%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신임 위원 비율이 지방에서 상당히 높은 것은 신임 위원들을 지방으로부터 발굴하여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케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된다. 부문별 구성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베트남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이제까지와 같은 점진적 변화만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정치국 및 비서국 구성

(1) 구성 배경

누가 새로운 임기에 공산당 및 국가기관의 최고위 지도자가 되는가는 당대회를 앞둔 시기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제11차 당대회를 앞두고 세간에는, 차기 당 총비서로 쩌엥떤짱(Truong Tan Sang) 당 비서국 상임비서, 응웬떤중(Nguyen Tan Dung) 수상, 풍꾸앙타인(Phung Quang Thanh) 국방부장관 등이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시, 총비서 농득마인과 국가주석 응웬민찌엣은 고령으로 사임할 예정이었고, 국회주석 응웬푸쑹(Nguyen Phu Trong)도 고령이고 임기 동안 높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지 못해 차기 지도부에 남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었다.¹⁰⁾ 쩌엥떤짱은 남부 롱안(Long An) 성

10) 2001년 제9차 당대회 시 당중앙위가 신임 당중앙위 위원은 55세 정치국 위원은

출신으로, 그가 총비서로 되는 것은 이제까지 북부 출신자가 총비서 직을 담임하였던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응웬푸쑹과 팜꾸앙타인은 모두 하노이 출신이며, 팜꾸앙타인은 평판도 좋은 편이었다. 수상직에 대하여는 응웬편중의 재임 여부가 관심사였다. 중서부 산간지대의 보크사이트 광산 개발권을 중국에 허가해준 것과 비나신(Vinashin) 사태에 대한 응웬편중 수상의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응웬편중은 비나신의 경영 부실에 대하여 국회에서 질책을 받고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수상의 경질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새 지도부의 윤곽은 2010년 10월 중순 13차 당중앙위 회의에서도 불확실하였고, 당대회를 한 달 앞둔 12월 중순 14차 당중앙위 회의에 이르러서야 드러났다. 사회학자 뜨엉라이(Tuong Lai) 교수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새 지도부 예정자들로, 당 총비서 응웬푸쑹, 국가주석 쩌엥편쑹, 수상 응웬편중, 국회주석 팜꾸앙응이(Pham Quang Nghi)를 들었고, 호주의 베트남 전문가 칼 테이어 교수가 9일간 베트남을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 BBC와 인터뷰에서 다시 이를 확인하였다("Binh luan ve Lanh dao Dang."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12/16; "Nhan xet ve 'Lanh dao Tuong lai' cua VN."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12/17). 국가주석, 수상, 국회주석은 5월 22일 선거로 구성될 제13기 국회에서 선출될 예정이었고, 국가주석에 쩌엥편쑹, 수상에 응웬편중이 선출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단지 국회주석에 팜꾸앙응이 또는 응웬신흥(Nguyen Sinh Hung)이 선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베트남 연구자인 뜨엉부(Tuong Vu)는 당대회 직후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국회주석에 응웬신흥이 유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고,¹¹⁾ 태이어도 당

60세를 초과할 수 없고, 재임 당중앙위 및 정치국 위원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정하였다. 단지, 총비서의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양해될 수 있다는 게 전반적 분위기였다.

11) 뜨엉부(Tuong Vu)와의 대화, 서울, 2011년 3월 24일. 응웬신흥(Nguyen Sinh Hung)

대회 이후 브리핑에서 응웬신흥을 국회주석 후보로 뽑았다(Thayer 2011).

(2) 구성 결과

당중앙위는 정치국 위원 14명, 비서국 위원 4명(정치국 위원 5명 겸직),¹²⁾ 당중앙 감찰위원회 위원 21명을 선출하였다. 정치국 위원은 당초 15-17명 선출되리라 예상되었으나, 선출된 인원은 14명으로 예상보다 적은 수였다. 이는 정치국 위원 인선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국 및 비서국 위원은 향후 추가로 충원될 수 있다. 제10기(2006. 4 - 2011. 1)의 경우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 14명, 비서국 위원 6명을 선출하였다가, 이후 정치국 위원 1명, 비서국 위원 3명을 추가로 충원한 바 있다.¹³⁾

제11차 당대회에서는 제10기 정치국 위원 15명 중 6명이 사임하고 9명이 연임하였으며, 사임한 위원은 대다수가 고령이었다.¹⁴⁾ 신임 위원은 5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이며, 이번 정치국 인사는 전임자들의 빈 자리를 채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임 총비서 농득마인

은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의 조카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베트남인들의 견해를 들어 보면, 그가 호찌민과 가까운 친척은 아닌 듯하다. 참고로 호찌민의 아명은 응웬신흥(Nguyen Sinh Cung), 10세 때 응웬땃타인(Nguyen Tat Thanh)이었고, 그의 부친 성명은 응웬신삭(Nguyen Sinh Sac)이었다.

- 12) 선출된 인원은 응오수언릭(Ngo Xuan Lich), 쩡영호아빈(Truong Hoa Binh), 하티키엣(Ha Thi Khiet), 응웬티킴응언(Nguyen Thi Kim Ngan), 정치국 위원으로서 비서국 겸직 인원은 쩡영땃쌍(Truong Tan Sang), 레홍아인(Le Hong Anh), 또후이르어(To Huy Rua), 응오반주(Ngo Van Du), 딘테후인(Dinh The Huynh) 등 5명이다. 이로써 비서국 위원은 9명이 되었다.
- 13) 2006년 7월 당중앙위 3차 회의에서 비서국 위원 1명(Ho Duc Viet), 2010년 1월 당중앙위 9차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1명(To Huy Rua), 비서국 위원 2명(Ngo Van Du, Ha Thi Khiet)을 추가로 선출하였다(<http://vnexpress.net/GL/Xa-hoi/2009/01/3BA0A65D?q=1>).
- 14) 제11차 당대회에서 사임한 정치국 위원은 농득마인(Nong Duc Manh, 71세), 응웬민찌엣(Nguyen Minh Triet, 69세), 쩡영빈쑹(Truong Vinh Trong, 69세), 팜짜키엠(Pham Gia Khiem, 67세), 응웬반찌(Nguyen Van Chi, 66세), 호득비엣(Ho Duc Viet, 64세)이다.

을 소수민족(Tay족) 출신으로 분류할 경우, 타이(Thai)족 출신인 퐁 티퐁(Tong Thi Phong)이 그 지분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제10기 및 제11기 정치국 위원들의 면모는 <표 2>와 같다.

<표 2> 제10, 11기 정치국 위원의 변동

제10기 (2006. 4~)	제11기 (2011. 1~)
★Nong Duc Manh (총비서, 71세) ▽ Le Hong Anh (공안부장관, 62) Nguyen Tan Dung (수상, 62) Nguyen Minh Triet (국가주석, 69) ▽ Truong Tan Sang (당비서국 상임비서, 62) Nguyen Phu Trong (국회주석, 67) ▲Pham Gia Khiem(부수상/외교부장관, 67) ▽ ▲Phung Quang Thanh (국방부장관, 62) ▲Truong Vinh Trong (부수상, 69) ▽ ▲Le Thanh Hai (호찌민시 당비서, 61) ▲Nguyen Sinh Hung (부수상, 65) ▲Nguyen Van Chi (당중앙 감찰위원회 주임, 66) ▽ ▲Ho Duc Viet (당중앙 조직위원장, 64) ▽ ▲Pham Quang Nghi (하노이시 당비서, 62) ▲To Huy Rua (당중앙 선전교육위원장, 64)	Truong Tan Sang (당 비서국 상임비서, 62세) Phung Quang Thanh (국방부장관, 62) Nguyen Tan Dung (수상, 62) Nguyen Sinh Hung (부수상, 65) Le Hong Anh (공안부장관, 62) Le Thanh Hai (호찌민시 당비서, 61) To Huy Rua (당중앙 선전교육위원장, 64) ★Nguyen Phu Trong (국회주석, 67) Pham Quang Nghi (하노이시 당비서, 62) ▲Tran Dai Quang (공안부 차관, 55) ▲Tong Thi Phong (국회부주석, 57) ▲Ngo Van Du (당중앙 사무처 주임, 64) ▲Dinh The Huynh (<년전> 편집장, 58) ▲Nguyen Xuan Phuc (정부 사무처 주임, 57)

- 주: 1. 범례: ★총비서, ▲신임, ▽차기 퇴임
 2. 정치국 위원 순위는 공산당 발표 순위로, 이 순위가 곧 당내 서열을 뜻하는 듯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제10기에 이 순위가 지지율이 높은 순위인가 당내 서열인가로 논란이 있었으나, 관찰자들은 제11기에 높은 지지율 순위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고토 후미오(五島文雄 2011: 82)는 제11기 당중앙위 1차 회의에서 당내 서열이 응웬푸쑹, 쑤엥뎐쑤, 퐁꾸앙타인, 응웬뎐쑤, 응웬신흥 순이었다고 하였다.
 3. 성명 다음 괄호 안은 당/국가 직위, 연령이다.
 4. 또후이르어(To Huy Rua)는 2010년 1월 9차 당중앙위 회의에서 추가로 선임되었다.
 출처: “Bo chinh tri Ban chap hanh Trung uong Dang Khoa X”; “Danh sach Bo chinh tri khoa XI.” <http://dangcongsan.vn/> 및 기타 정보를 기초로 작성.

정치국 위원의 출신지방별 분포는, 제10기에 북부 4명, 중부 5명, 남부 6명으로부터, 제11기에 북부 6명, 중부 4명, 남부 4명으로 변하여, 남부 편중으로부터 북부 편중이 되었다.

국가 최고위 직위에는, 국가주석 쩌엥띠엥, 수상 응웬띠중, 국회 주석(의장) 응웬신흥이 내정되었으며, 이는 2011년 5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구성되는 새 국회에서 확정될 것이었다.

<그림 2> 제11기 베트남공산당 지도부



주: 전열 좌로부터, 풍꾸앙타인(국방부장관), 응웬띠중(수상), 응웬푸쥁(국회주석, 신임 총비서), 쩌엥띠엥(당 비서국 상임비서, 이후 국가주석), 응웬신흥(부수상, 이후 국회주석), 레홍아인(공안부장관, 이후 당 비서국 상임비서)
출처: <http://tuoitre.vn/>

2011년 5월 22일 국회대표(국회의원) 선거 후 구성된 제13기 국회에서 예상대로 상기 인사들이 국가기관의 직위를 맡게 됨으로써, 베트남 최고위 트로이카의 지역별 안배는 총비서 북부(Hanoi 출신), 국가주석(Long An 출신) 및 수상(Ca Mau 출신) 남부로 제10기처럼 남부에 비중이 더하게 되었다. 여기에 국회주석을 포함시켜 4명의 지역배분을 볼 경우, 응웬신흥이 응에안(Nghe An) 출신이므로, 최고위 지도자 4명의 지역별 안배는 북부 1명, 중부 1명, 남부 2명이 되어, 제10기 북부 2명, 남부 2명보다 중남부에 비중이 치우친 듯하다. 그러나 응웬신흥이 중북부 출신이고 주로 북부에서 활동한 인사여

서 이를 북부 인사로 분류한다면 지역안배에서 북부 2명, 남부 2명으로 제10기처럼 지역안배는 유지된 셈이다.

3. 권력 구도

제11기 정치국 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응웬푸쑹과 응웬편중의 계열로 여겨지는 인사들이 다수이며, 쯔엥띠쌩 계열 인사는 소수라고 평가된다(五島文雄 2011: 83-84). 응웬푸쑹 계열로는 또후이르어 당 중앙 조직위원회 위원장, 팜꾸양응이 하노이 시 당위 비서, 똥티퐁 국회부주석, 딘테후인 당중앙 선전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중앙이론평의회 주석 등이 꼽힌다. 응웬편중은 20년간 군 복무, 공안부차관, 당중앙 경제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방, 공안, 경제계 등에서 폭넓게 인맥을 구축하였다. 응웬편중 계열로는 팜꾸양타인 국방부장관, 응웬신흥 국회주석, 레홍아인 당 비서국 상임비서, 응오반주 당중앙 감찰위원회 주임, 응웬수언푹 전 정부사무처 주임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세간에서는 응웬편중이 어느 수상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쯔엥띠쌩 계열에는 레타인하이 호찌민시 당위 비서가 있다.

신임 총비서 응웬푸쑹의 면모를 보면 그가 개혁을 급속히 진전시키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 이번에 사임한 농득마인(Nong Duc Manh)이 2001년 총비서로 선출될 당시 언론들은 그가 개혁을 진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그의 임기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다. 그에 대한 기대는 그가 국회주석을 1992-2001년간 두 임기 담당하는 동안 국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제11기 총비서로 선출된 응웬푸쑹이 제10기 중 국회주석을 맡는 동안 국회의 개혁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응웬푸쑹이 총비서로 당선된 것은 그의 청렴함과 두드러지지 않는 성향 때문이라

판단되며, 중국의 지원 때문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응웬푸쑹을 총비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 원로들 중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진다(五島文雄 2011: 83). 응웬푸쑹은 취임연설에서 “내 흔적을 남기고, 광택을 내고, 어떤가 알려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일하지 않겠다”고 겸손함을 보였다("Tan Tong bi thu: 'Toi lam khong phai de danh bong'." <http://vietnamnet.vn/>, 2011/01/19).

총비서는 공식적으로 공산당의 제1인자로서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다. 그러나 개혁이 진행되면서 공산당보다는 국가의 실질적 기능이 확대·강화되어 왔다. 특히 국가권력은 수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당내에서 총비서는 서열 1위의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당의 수장으로서 의례적 최고위 위상을 유지하며, 실제 권력은 국가주석과 수상, 그 중 특히 수상에 의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간 농득마인이 의례적 최고위 직위에 있었고 응웬푸쑹 역시 이런 위상을 유지한다면, 향후 베트남의 정치권력구도는 당-국가 체계에서 실질적으로는 당의 위상 약화와 국가의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진전된다면, 당 총비서가 사회주의 국가의 상징적 지도자로서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2011년 5월 선거 이후 7월 21일 - 8월 6일 간 개최된 제13기 국회 1차 회의는 예상대로 국가주석 쩌엥떤썩, 수상 응웬떤중, 국회주석 응웬신흥을 선출하였다. 이 회의는 부수상을 4명 선임하여 이전보다 1명 감축하였고, 연임 장관 7명, 신임 장관 15명으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또한 팜자키엠(Pham Gia Kiem) 외교부장관이 겸임하던 부수상직을 없앴다. 팜자키엠이 외교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베트남은 2008-2009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010년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맡아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따라서 일부 외신들은 팜자키엠의 사임을 의외라고 평하였으

나, 그가 고령인 점도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 제13기 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이 부수상을 겸임하지 않게 됨에 따라, 향후 외교부에서 수상의 직접적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인사에서 이례적인 일은 제10기 및 제11기 당 정치국 서열에서 상위에 있었던 레홍아인 공안부장관이 연임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장관직에서 사임하고 당 비서국 상임비서로 자리를 옮겨 고위직을 유지하였다. 한편, 제13기 국회 1차 회의 직전, 응웬떤중 수상의 연임이 불투명하다는 루머가 향간에 퍼졌다. 제11차 당대회 직전에도 중서부 산간지대의 보크사이트 광산개발권을 중국에 허가해준 것과 비나신의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연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그는 “뛰어난 정치술”로 연임에 성공하였다(김선한 2011). 그의 연임은 국영기업, 국방 및 공안부 관련 지도자들의 지원으로 가능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 강화된 수상직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응웬떤중 수상은 취임연설에서 주권 수호를 강조하였고 “인민의 공복”이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Thu tuong nguyen 'lam cong boc cua dan'." <http://vnexpress.net/>, 2011/08/03).

V. 발전전략과 정치과정상 변화

1. 경제사회 발전전략 조정

(1) 양적·질적 성장 동시 추구

당은 이제까지 규모 확대 위주의 성장으로부터 향후 규모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하였고(Bao cao Chinh tri, III-1), 국제적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경

제의 독립·자주성을 증강할 것이라고 하였다. 베트남은 이제까지의 성장속도 위주의 경제발전전략으로부터 전환하여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성장모델을 채택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으며 이제까지의 기초를 크게 변경할 수는 없으리라 본다.

(2) 사유경제의 지속적 확대

이제까지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사유화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사유화 문제에서 1990년대 이래 핫 이슈는 국영기업 개혁이다. 정부는 국영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식회사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는 지체되고 있다. 한편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소유로 유지할 기업들을 ‘총공사’라는 명칭의 대형기업으로 편성하거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집단’(business group)으로 편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경제집단 8개, 대형 총공사(총공사91) 12개, 중형 총공사(총공사90) 약 60개가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제까지 ‘경제집단’의 핵심 기업을 순수 국영기업으로 두고 산하 국영기업을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지배주주로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 개혁작업은 국영기업 주관 부서 및 기업 경영진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혼합소유경제를 지속하면서 국영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사유 ‘경제집단’의 발전을 언급한 것은 국영기업 개혁의 지체된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방책의 하나다.

(3) 사회적 불균형 억제

“사회주의로의 과도 시기 국가건설 강령 2011”과 “2011-2020 경제사회 발전전략”에는 ‘조화’(hai hoa: 諧和)라는 용어가 여러 곳에 나타난다. 그것은 지역 간 조화, 물질생활과 정신생활 간 조화

(Cuong linh 2011, III-1, III-2), 경제성장과 문화발전의 조화로운 결합(Chien luoc, II-1), 각 소유부문 경제 및 여러 기업유형 간 조화, 농업에서 생산자·가공생산자·소비자 간 조화, 지역간 조화발전, 경제발전과 조화하는 문화·사회 부문(Chien luoc, II-4, IV-3, IV-6, IV-7), 도시와 농촌의 조화, 토지사용권자·투자자(토지이용자)·국가 간 이해의 조화, 사회 각 구성원 간 이익관계의 조화(Bao cao Chinh tri, III-6, IV-3, V-2) 등이다.

이러한 조화사회의 강조는 개혁과정에서 점차 확대되는 계급·계층간 격차, 지역간 격차 등을 완화시켜 보려는 시도이나 아직은 수사(rhetoric)에 그치고 있다. 이 조화사회 개념은 중국공산당이 2006년 10월 제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의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면서 공식화한 ‘사회주의 조화사회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하다. 베트남 개혁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비단 이것만은 아니다. 현 발전단계를 규정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co phan hoa, 股分化), ‘평화적 진보’(dien bien hoa binh, 和平演變) 등의 개념이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에 이번 당대회에서 ‘조화사회’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이 밖에도 균형적 사회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로 제시된 것이 ‘신농촌’ 건설, ‘녹색성장’ 등이다. 이 개념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 및 녹색성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러나 당대회 문건은 이 개념들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결하고 있어, 이러한 개념들이 아직은 수사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대외전략의 강화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듯, 대외전략은 지

난 제10차 당대회에서 “주동적,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통합한다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주동적·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각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DCSVN 2011: 47). 또한 대외적으로 공산당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각국의 집권 당 및 정당들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¹⁵⁾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지상과제는 ‘평화적 전복’에 대한 경계를 통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자기 변화(전복)’라는 용어는 내부 비판자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당 내부의 비판이 심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정치과정상 변화

(1) 총비서 직접선거방식 논의

당대회 직전에 당중앙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쩌르우하이(Tran Luu Hai)는 다수의 당대표들이 총비서를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면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Bau truc tiep Tong bi thu la do Dai hoi Quyet dinh." <http://vietnamnet.vn/>, 2011/01/10). 그는 2010년에 지방 10개 성(tinh, 省)에서 시험적으로 당위원회 비서를 직접선거한 결과 좋은 평가를 얻었고 공감하는 여론이었다고 덧붙였다("Dan sach bau trung uong Dang co so du it nhat 15%." <http://vnexpress.net/>, 2011/01/10).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대회에서 선출방식을 결정하고, 당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실제 총비서에 대한 직접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당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총비서를 당대회에서 선출하느냐

15) 이념적 지향이 판이하게 다른 정당 간의 협력관계 구축 사례로 2011년 8월 15일 베트남공산당과 한국의 한나라당 간의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들 수 있다.

당중앙위에서 선출하느냐에 관한 논의는 지난 제10차 당대회에서도 있었으나 당대회에서 추천한 복수 후보를 대상으로 당중앙위에서 선출하였을 뿐이다(이한우 2007: 97). 이번 당대회는 총비서 후보를 당대회에서 추천하지도 않았고 복수로 내지도 않아, 이 기준으로 보면 당내 민주화 수준은 지난 당대회보다 후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지방에서 직접선거 실험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각 지방에서 개최된 당지부 대표대회에서 각급 당위원회 비서를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실험이 시행되었다. 예전에는 지방 당지부 대회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집행위원회에서 당위원회 비서를 선출했었다. 이 실험은 전국 10개 성(tinh, 省), 시(市)에서 시행되었는데,¹⁶⁾ 성(tinh)의 15-20%, 현(huyen)의 15-20%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낭의 경우에는 당지부 집행위원회가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하였으나 3명이 사의를 표명하여, 1명에 대하여 당지부 대회에서 직접선거가 이루어졌다("Bi thu Da Nang tai dac cu."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09/29). 이러한 시도는 지방 수준의 당내 민주화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실험이 중앙급으로 확대되면, 당 총비서를 당중앙위가 아니라 당대회에서 전국의 대표들이 직접선거한다는 함의를 갖는 것이기에 발전적 의미를 띤다.

(3) 당중앙위 위원 자천후보

지난 제10차 당대회에서 2명이 자천으로 당중앙위 후보로 나섰는데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도 1명이 자천후보로 나섰다.¹⁷⁾ 거의 대부

16) 10개 성시(省市)는, 다낭(Da Nang), 랑썬(Lang Son), 라이쩌우(Lai Chau), 타이빈(Thai Binh), 하띤(Ha Tinh), 꾸앙응아이(Quang Ngai), 닌투언(Ninh Thuan), 꼰똌(Kon Tum), 벤째(Ben Tre), 쑝짱(Soc Trang)이다.

분 후보들은 소속 당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들이었다. 이번 자천후보는 당중앙 선전교육위원회 산하 사무 및 자료·과학연구센터 부감독 응웬쑤언끼엔(Nguyen Xuan Kien, 45세)이었다. 그는 하노이 사범대학에서 정치교육을 공부하고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강사와 당중앙 선전교육위원회 산하 부서에서 부감독을 맡고 있다("Toi co niem tin khi tu ung cu vao trung uong Dang." <http://vnexpress.net/>, 2011/01/11). 결과적으로 그는 당중앙위 위원에 선출되지 않았지만, 당중앙위 자천후보의 등장 기록을 추가하였다.

(4) ‘붉은 씨앗’: 자녀세대의 등장

이번 당대회에서는 ‘붉은 씨앗’(hat giong do)라고 불리는 전·현직 당 지도자들의 자녀들 5명이 당중앙위 정위원으로, 3명이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농득마인 총비서의 아들 농꾸옥뚜언(Nong Quoc Tuan) 박장(Bac Giang) 성 당위원회 비서, 전 외교부장관 응웬꺼타익(Nguyen Co Thach, 본명 Pham Van Cuong)의 아들 팜빈민(Pham Binh Minh) 외교부차관 등이 정위원에, 응웬편중 수상의 아들 응웬타인응이(Nguyen Thanh Nghi) 호찌민시 건축대학 부학장, 응웬신흥의 조카 쩌씨타인(Tran Sy Thanh) 닥락(Dak Lak) 성 당위원회 부비서 등이 후보위원에 선출되어, 중국의 ‘태자당’처럼 베트남에서도 자녀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Truyen thong gia dinh trong Dang." <http://www.bbc.co.uk/vietnamese/>, 2011/01/20).¹⁸⁾

17) 제10차 당대회 자천후보는 외교부차관 응웬푸빈(Nguyen Phu Binh), 하노이국가대학 교수 응웬수언한(Nguyen Xuan Han)이었다(이한우 2007: 92).

18) 이 밖에도 다음 인사들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정위원에 응웬찌타인(Nguyen Chi Thanh) 대장의 아들 응웬찌빈(Nguyen Chi Vinh) 국방부차관, 전 총비서 하후이땀(Ha Huy Tap)의 외손녀(chau ngoai co) 응웬티킴띠엔(Nguyen Thi Kim Tien) 의료부차관(2011년 8월 장관으로 승진), 전 베트남라디오 총감독 쩌람(Tran Lam)의 아들 쩌빈민(Tran Binh Minh) 베트남텔레비전 부총감독 등이 선출되었고, 후보위원에 응웬반찌 당중앙 감찰위원회 주임의 아들 응웬쑤언아인(Nguyen Xuan

VI. 맺음말

베트남의 제11차 당대회는 단지 기존의 점진적 개혁정책을 확인하는 대회였다. 정책에 있어서나 인사상 변동에 있어, 향후 베트남 사회 전반에 크게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문건들을 보면, 그 내용이 예전처럼 사회주의 체제 보수와 개혁의 절충적 타협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목표를 유지하면서 탈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제적 영향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평화적 전복’으로 경계하고, 당 내부적으로 ‘자기 변화(전복)’, ‘자기 전화’라는 용어들로 표현되는 당내 변화 요구를 억제하는 논지를 펴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다부문 경제체제의 확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지향’을 강조하여 급속한 변화를 억제한다. 그러면서, 혼합소유체제 유지와 사유 ‘경제집단’ 설립 등 사유 경제부문의 확대를 논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새로운 것은, 2020년까지 ‘현대 지향 공업국’의 기반을 다지고 21세기 중반에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며, 양적 성장 위주가 아닌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조화사회’의 건설을 강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수사로나마 완화해보려 하였다. 당이 ‘현대 지향 공업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도 상세히 논하지는 않았으나, 양적이고 급속한 성장을 지양하여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며 지역간 또는 계급간 불평등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이

Anh) 다낭시 리엔찌에우 켄(quan Lien Chieu) 당위 비서 등이 선출되었다("Truyen thong gia dinh trong Dang." <http://www.bbc.co.uk/vietnamese/>, 2011/01/20).

해된다.

정치부문에서는 개혁이 급속히 진전되리라 볼 수 없으며, 기존에 추구하던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 행정개혁, 국회개혁 등을 계속 추구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긍정적 요소는 당내 민주화를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당대회에서 총비서 선출의 주체를 당중앙위 정위원으로 할 것인가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 전체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난 제10차 당대회에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도 논의하였다. 이에 앞서, 당대회 이전에 지방에서 개최된 당지부 대회에서 당위원회 비서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은 당내 의사결정의 하향 ‘민주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의 승인 하에서 용인되는 것이므로, 그 변화의 폭은 매우 작으며 정치변동에 주는 의미 또한 크지 않다. 그러나 공산당 1당 지배 하의 상황에서 당내에 한정되어 있지만 권력분권화가 확대되고 위로부터의 점진적 정치개혁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한 문건이나, 향후 5년간 당-국가의 직무를 담당할 인사들의 면모를 볼 때, 베트남은 이제까지 진행해온 점진적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주제어: 베트남, 공산당, 사회주의, 개혁, 도이머이

〈참고문헌〉

- 김선한. 2010. “당서기장, 대의원 직접 선출방식 검토.” 『연합뉴스』 9월 27일.
- _____. 2011.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 유임 - 부드러운 카리스마.” 『연합뉴스』 7월 26일.
- 박승철·정동욱. 2011. “베트남 무역적자달려 물가 ‘3重苦.’” 『매일경제』 3월 9일.
- 이한우. 2002. “베트남의 체제 변화와 21세기 발전 방향: 제9차 당대회 결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5(4).
- _____. 2007. “베트남에서 개혁의 확대와 정치적 일원주의의 완화: 제10차 당대회 결과 분석.” 『신아세아』 14(1).
- _____. 2010a. “베트남 ‘도이머이’ 시기 정체체제 변화: 사회적 도전과 당-국가의 대응.” 『신아세아』 17(4).
- _____. 2010b. “탈사회주의 이행기 베트남에서 국가-노동 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10(3).
- 五島文雄. 2011. “新しい党・國家體制の特徴と今後の課題” 『東亞』 532.
- Bao cao Chinh tri. “Bao cao Chinh tri cua Ban chap hanh Trung uong Dang khoa X tai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XI cua Dang.” [당 제11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제10기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정치보고]. <http://www.cpv.org.vn/>.
- “Bau truc tiep Tong bi thu la do Dai hoi Quyet dinh.” [총비서 직접 선거는 대회가 결정]. <http://vietnamnet.vn/>. 2011.01.10.
- “Bi thu Da Nang tai dac cu.” [다낭 비서 재당선].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09.29.
- “Binh luan ve Lanh dao Dang.” [당 영도에 대한 평론].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12.16.

- Chien luoc. “Chien luoc Phat trien Kinh te-Xa hoi 2011-2020.” [2011-2020 경제사회 발전전략]. <http://www.cpv.org.vn/>.
- Cuong linh 1991. “Cuong linh Xay dung Dat nuoc trong Thoi ky qua do len Chu nghia xa hoi.” [사회주의로의 과도 시기 국가 건설 강령]. <http://www.cpv.org.vn/>.
- Cuong linh 2011. “Cuong linh Xay dung Dat nuoc trong Thoi ky qua do len Chu nghia xa hoi (Bo sung, Phat trien nam 2011).” [사회주의로의 과도 시기 국가 건설 강령(2011년 보충·발전)]. <http://www.cpv.org.vn/>.
- “Dai hoi toa ra niem tin moi: Bau Bo chinh tri co so du 70%.” [대회는 새 소식을 알하다: 70% 초과한 수(후보)로 정치국 선거]. <http://tuoitre.vn/>. 2011.01.19.
- “Danh sach bau trung uong Dang co so du it nhat 15%.” [당 중앙 선거 명단은 최소 15%를 초과한 수]. <http://vnexpress.net/>. 2011.01.10.
- DCSVN(Dang cong san Viet Nam). 2011. *Van kien Dai hoi Dai bieu Toan quoc Lan thu XI* [제11차 전국대표대회 문건].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Dieu le Dang cong san Viet Nam.” [베트남공산당 조례]. 2011. <http://www.cpv.org.vn/>.
- “Lo ngai Dang ‘Tu Dien bien’.” [당 자기 변화 우려].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09.04.
- Nguyen Van Thao & Nguyen Viet Thong(dong chu bien). 2011. *Tim hieu Mot so Thuat ngu trong Van kien Dai hoi XI cua Dang* [당 제11차 대회 문건 중 몇 가지 술어 이해].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 “Nhan xet ve ‘Lanh dao Tuong lai’ cua VN.” [베트남의 ‘장래 영도’

- 에 관한 고찰].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12. 17.
- “Sua chua He thong XHCN ‘nhieu khuyet tat’.” [‘여러 결점’의 사회주의 체제 수정]. <http://www.bbc.co.uk/vietnamese/>. 2010. 09.28.
- “Tan Tong bi thu: ‘Toi lam khong phai de danh bong’.” [신 총비서: ‘나는 광택을 내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http://vietnamnet.vn/>. 2011.01.19.
- “Thu tuong nguyen ‘lam cong boc cua dan’.” [수상 ‘인민의 공복이 되기’를 원한다] <http://vnexpress.net/>. 2011.08.03.
- “Toi co niem tin khi tu ung cu vao trung uong Dang.” [나는 당 중앙에 들어가려고 자기 입후보할 때 믿음이 있다]. <http://vnexpress.net/>. 2011.01.11.
- “Truyen thong gia dinh trong Dang.” [당에서 가정 전통]. <http://www.bbc.co.uk/vietnamese/>. 2011.01.20.
- “Vu TS Cu Huy Ha Vu: Y an So tham.” [꾸후이하부 박사 소송사건: 초심 판결에 동의]. <http://www.bbc.co.uk/vietnamese/>. 2011.08.02.
- Amer, Ramses. 2010. “Vietnam 2009: Facing the Global Recession.” *Asian Survey* 50(1): 211-217.
- _____. 2011. “Vietnam 2010: Regional Leadership.” *Asian Survey* 51(1): 196-201.
- Gainsborough, Martin. 2007. “From Patronage to ‘Outcomes’: Vietnam's Communist Party Congresses Reconsidered.”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2(1): 3-26.
- Hayton, Bill. 2010. *Vietnam: Rising Drag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oh, David. 2008. “Leadership Change at the 10th Congress of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Asian Survey* 48(4): 650-672.

- Malesky, Edmund, Paul Schuler, and Anh Tran. 2011. "Vietnam: Familiar Patterns and New Developments Ahead of the 11th Party Congress." *Southeast Asian Affairs 2011*.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Pham Ngoc Thach. 2011. "Sino-Vietnamese Relations Realizing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Vietnam and China: Obstacles to Overcome." 경남대학교 개교 6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중국과 전략적 주변국" 발표 논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6월 3일.
- Thayer, Carlyle A. 2010. "Recent Development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for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Paper presented to the 2nd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South China Sea: Cooperation for Reg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co-organised by th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and the Vietnam Lawyers' Association. Nov. 10-12. Ho Chi Minh City, Vietnam.
- _____. 2011. "Background Briefing: Vietnam's New Party Leadership: First Take." Jan. 19.
- "Vietnam Activist Cu Huy Ha Vu jailed after Hanoi Trial." *BBC News*. April 4, 2011.
- "Vietnam Detains 2 Prominent Dissidents." *Associated Press*. April 7, 2011.
- "Vietnam 'Strikes Rising' as Inflation Soars." *AFP*. May 17, 2011.
- (2011. 09. 26. 투고; 2011. 10. 17 심사; 2011. 10. 28 게재확정)

<Abstract>

Continuing Gradual Reform in Vietnam: An Analysis of the 11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LEE Hanwoo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Research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11th Congress of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VCP) held in January 2011 was the forum to reconfirm the gradual reform. By analysing the documents submitted to the Congress, it can be realized that the VCP's reform policy reveals the compromise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erspectives by "the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The VCP proposes to proceed the balanced refor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multi-sector economy to achieve the basis of the modern state by 2020 on the one hand and also urges to strive against "the peaceful evolution" to defend the socialist regime from abroad as well as within the party itself on the other hand. In personnel structure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Politburo, this term of the Party still keeps the balance of the localities and sectors of the society. No big change was in the selection of top leaders, as almost of them were promoted slightly in the existing echelon of the Politburo. On the prospect of the reform process Vietnam will continue the reform as gradual as before.

Key Words: Vietnam, Communist Party, Socialism, Reform, Doi Moi